

## 홍난파의 미발표 단편소설 번역집 『다복한 사형수』의 번역 계보 및 번역사적 의의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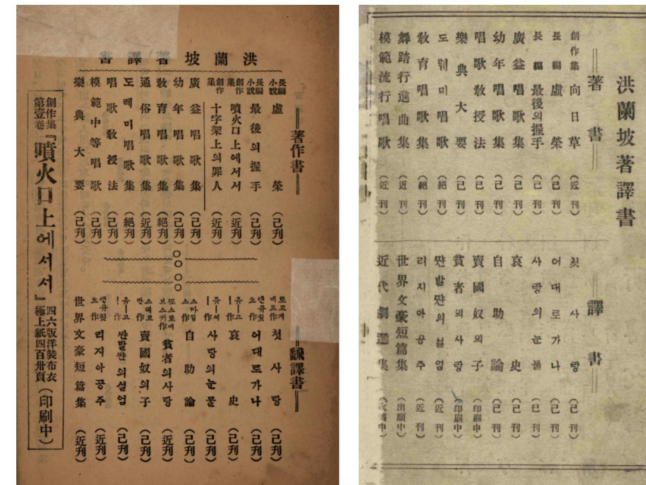
윤 경 애  
(영남대)

### 1. 서론

홍난파는 바이올리니스트와 작곡가로서 한국 근대 음악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초기에는 번역가로서 아홉 편의 중, 장편 소설을 번역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하였고 두 편의 단편소설을 번역하여 잡지에 게재하는 등 활발한 번역활동을 전개하였다.<sup>1)</sup> 1923년에 홍난파는 주더만의 『매국노의 자』, 위고의 『썬밭잔의 설염』, 스마일스의 『청년입지편 -자조론』을 잇달아 발표하였고, 그 가운데 1923년 1월 30일 박문서관에서 출판된 『청년입지편 -자조론

』 뒷편 광고란의 저역서 목록에 ‘출원중’으로, 동년 3월 15일 회동서관에서 출판된 『매국노의 자』 저역서 목록에 ‘근간’으로 표기된 『世界文豪短篇集』은 1923년 출판 예정이었으나 출판이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단국대학교 ‘난파 홍영후 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육필 원고 『多福한 死刑囚』가 1923년 출판 예정이었던 『世界文豪短篇集』으로 추정된다. 『다복한 사형수』에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의 단편소설 11편이 번역되어 있다.

그림 1 홍난파의 저역서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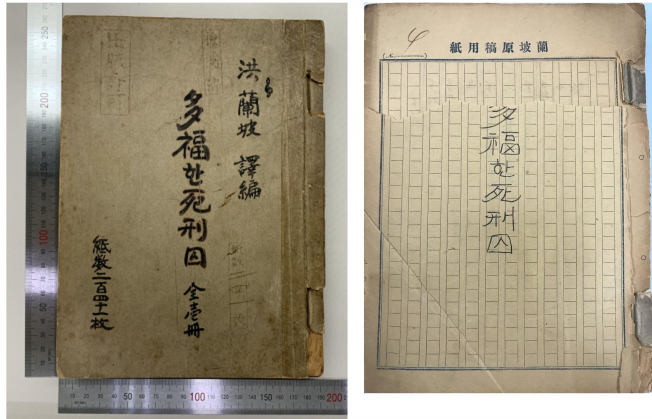
1920년대는 번역문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이며 그 중에서도 단편소설 번역은 한국 근대 소설사에서 단편양식이 주류 양식으로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한국 단편소설에 원형을 제시하며 큰 영향을 끼쳤다(박헌호 2004). 그러나 대부분의 단편소설 번역이 신문이나 잡지를 중심으로 게재되었고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는 점에서, 육필 원고로만 남아 있는 홍난파의 단편번역집은 당시의 번역 수준과 방법을 가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홍난파의 미발표 단편소설 번역집 『다복한 사형수』 원고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서지적 고찰과 더불어 번역의 계보와 번역 방법을 살펴보고, 단편소설의 번역사 안에서 『다복한 사형수』 번역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1037802).

1) 홍난파의 번역서 목록과 자세한 번역 활동에 대해서는 줄고 ‘홍난파의 『쿠오바디스』 번역 양상과 번역의 계보 고찰’, 참조.

## 2. 『다복한 사형수』의 구성과 서지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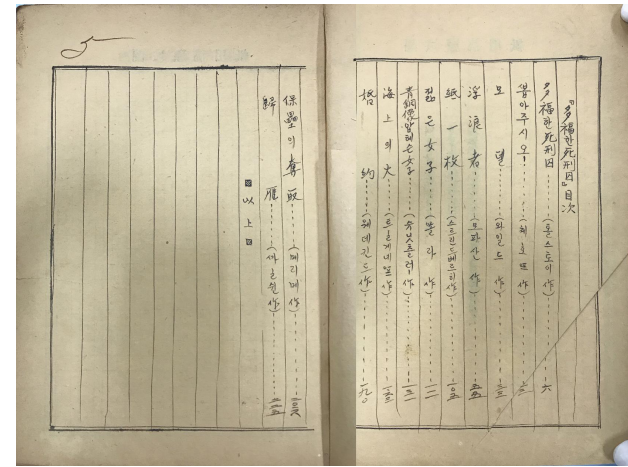
그림 2 『다복한 사형수』 표지



<그림 2>와 같이 표지에서 원고지 매수 241매에 한 권(全壹冊)으로 구성된 번역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지 상단에 「出版許可」와 검열이 끝났다는 「檢閱濟」라는 인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출판을 위한 검열까지 모두 마쳤음을 알 수 있다. 표지 안쪽 표제지의 원고용지 상단에는 ‘蘭坡原稿用紙’가 인쇄되어 있다. 검열을 위해 출판사에서 번역가에게 제공한 정서용 원고인지 홍난파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원고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난파기념관에 소장된, 검열 인장이 찍힌 홍난파의 다른 육필 원고에도 ‘蘭坡原稿用紙’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제지 안쪽에는 <그림 3>과 같이 수록된 단편소설의 제목과 작가명이 적혀 있다. 작가의 국적별로 보면 러시아소설 4편(톨스토이, 체호프, 투르게네프, 가르신), 프랑스소설 3편(모파상, 졸라, 메리메), 독일소설 1편(프랑크 베데킨트), 오스트리아소설 1편(아르투어 슈니츨러), 스웨덴소설 1편(스트린드베리), 영국소설 1편(오스카 와일드)이다. 당초 출판 예정 제목이었던 『세계문호단편집』의 제목에 걸맞게 ‘세계’ ‘문호’의 다양한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다. 소개하는 작가와 작품의 수준에서 일제 강점기에 볼 수 없는 단편 번역집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 『다복한 사형수』 목차



1920년대 한국에서 러시아 소설의 경우 체호프(11편), 톨스토이(10편), 고리키(8편), 투르게네프(5편) 등 일부 작가들의 작품이 반복적으로 번역되었고 프랑스 소설의 경우에는 모파상을 비롯하여 뒤마, 위고, 발자크, 졸라, 모리스 르블랑, 아나톨 프랑스 등 여러 작가들의 작품이 폭넓게 소개되었다(김병철 1975: 435-443). 홍난파의 단편 번역집에서도 러시아 소설과 프랑스 소설이 각각 4편과 3편 번역되어 당시의 번역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다복한 사형수』에는 최남선과 이상수 등이 숭배한 톨스토이의 작품이 전면 배치되었고, 조선 작가들의 창작품을 평가하는 데 일종의 기준으로 작용하며(손성준 2018a: 185) 현대 영미 단편소설은 물론 중국의 루쉰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친(Gullason 1964) 체호프와 모파상의 작품이 뒤를 잇는다. 톨스토이, 체호프 등 러시아 작품은 비교적 일찍 번역, 소개된 반면 오스카 와일드의 경우 「사로메」가 희곡의 형식으로 『백조』(1922.1.9., 박영희 역)에 처음 소개된 이후 1920년대에 5차례 축약되어 소개되었고, 소설의 경우 1929년 「뜨리앙그레-肖像」이 조선일보에 2회에 걸쳐 매우 짧게 축약되어 연재되었을 뿐이다. 1920년대에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소설이 번역된 것은 『다복한 사형수』에 실린 「모델」이 유일하다. 모파상의 경우 1921년 1월 김억이 『창조』 8호에 「고독」을 번역하였고 같은 해 홍난파가 『신천지』 7호에 「부랑자」를 번역하였다. 『신천지』에 실린 「부

랑자』는 『다복한 사형수』에 네 번째로 실린 작품과 동일하다. 프랑스 소설에 대한 홍난파의 관심과 작품 선정안은 당대 어떤 번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1920년대 메리메의 작품은 『카르멘』이 1924년 토월회에서 공연되었을 뿐(이미원 1993: 111), 소설로서는 『다복한 사형수』에 실린 홍난파의 번역이 유일하다. 홍난파 번역의 프랑스 소설로 『다복한 사형수』에 실린 작품 외에 뒤세의 『세기아의 고백』을 번역한 『사랑의 눈물』(1922, 박문서관)과 졸라의 『나나』(1924, 박문서관)는 일제강점기에 유일하게 단행본으로 출판된 번역서이다. 메리메의 작품을 비롯하여 『다복한 사형수』에 실린 베데킨트, 슈니츨러, 스트린드베리의 단편소설은 『다복한 사형수』가 예정대로 1923년에 출판되었다면 홍난파의 번역이 최초이다.<sup>2)</sup>

『다복한 사형수』에 실린 11편의 단편 중 표제작인 「다복한 사형수」를 포함한 5편이 풍자적 단편소설이다. 풍자적 단편소설이 그 대상(들)에 대해 환원적 공격을 지속하고, 그 의도된 독자에게 곁으로 드러난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할 때(Gerald 1968), 홍난파가 번역 작품을 선정하면서 의도한 대상 독자와 풍자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단편소설의 풍자성은 ‘단편’이라는 양식적 특징의 하나로 볼 수도 있으나 선정 작품의 절반에 가까운 작품을 풍자적 소설로 구성한 것은 기획된 의도로 볼 수 있다. 단편의 특성은 작품이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할 의무가 없다. 즉 장편과 달리 작가가 일관된 이데올로기에 의거하여 삶 전반을 해석해야 할 의무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판단을 유보하고 제시할 뿐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박헌호 2004: 88). 이것은 근대 소설사에서 단편소설이 주류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풍자 소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복한 사형수』의 번역 기획으로도 풀이된다.

“무릇 신문학의 건설은 외국문학 수입으로 그 기록을 비롯한다. 우리가 외국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결코 외국문학 연구 그 것만이 목적이 아니요 첫째로 우리 문학의 건설, 둘째로 세계문학의 호상범위를 넓히는데 있다.”(創刊卷頭辭 1927. 1)고 밝힌 해외문학과 번역 목적은 실상 창작 4편, 출판된 번역서만 9

편에 이르는 홍난파에게 가장 적합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외국문학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으로써 딜레탕티즘에 빠진 채 서구의 근대문학보다 뒤쳐진 자국의 근대문학을 계몽하겠다는 선민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더라도(고명철 2002: 143), 번역 작품의 선정 능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3. 『다복한 사형수』의 일본어 번역 저본과 번역 방법

#### 3.1 『다복한 사형수』의 일본어 번역 저본

『다복한 사형수』에 수록된 단편소설은 모두 원본이나 영역본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일본어 번역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된 것이다. 본 연구 조사에서 『다복한 사형수』의 일본어 저본이 모두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관내열람을 통해 텍스트를 비교하였다. 본 조사에서 확인한 『다복한 사형수』의 일본어 저본은 모두 네 권으로, 홍난파는 이들 일본어 단편소설 번역집에서 11편의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하였다. 네 권의 일본어 저본은 기타가와 소잔(喜多川楚山)의 『젊은 여자(若い女)』(1915, 菊屋出版部), 기쿠치 마사야스(菊池仁康)의 『러시아 21인집(露西亞二十一人集)』(1922, 善文社), 히라노 이마오(平野威馬雄)의 『모파상 선집(モオパッサン選集)』(1920, 新潮社), 구스야마 마사오, 야마모토 유조(楠山正雄, 山本有三) 공역의 『슈니츨러선집(シュニツレル選集)』(1922, 新潮社)이다. 기타가와 소잔의 『젊은 여자(若い女)』에는 「젊은 여자(若い女)」를 포함하여 졸라, 모파상, 메리메, 오스카 와일드, 가르신, 안드레예프, 베데킨트의 단편소설 15편이 수록되어 있다. 기쿠치 마사야스의 『러시아 21인집(露西亞二十一人集)』에는 톨스토이가 모파상의 단편소설을 번역한 「너무 비싸(余りに高い!)」를 비롯하여 체호프, 투르게네프, 쿠프린, 고리키, 안드레예프, 가르신, 코롤렌코, 도스토예프스키 등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히라노 이마오의 『모파상 선집(モオパッサン選集)』에는 모파상의 단편소설 22편이, 구스야마 마사오와 야마모토 유조의 『슈니츨러 선집(シュニツレル選集)』에는 슈니츨러의 희곡 다섯 편과 단편소설 다섯 편이 수록되어 있다. 야마모토 유조는 1922년 선집의 「묘한 여자(妙な女)」를 포함한

2) 스트린드베리의 작품은 1923년과 1925년 각각 『債魂』, 『쭈리아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토월회에서 공연되었다(이미원 1993: 110).

단편소설 다섯 편에 「정부살해(情婦殺し)」를 추가해 여섯 편의 단편소설만을 따로 모은 『정부살해(情婦殺し)』(1926, 新潮社)를 출판하였다.

홍난파는 기타가와 소잔의 단편 번역집에서 6편, 기쿠치 마사야스의 단편 번역집에서 3편, 히라노 이마오, 구스야마 마사오와 야마모토 유조의 단편 번역집에서 각각 1편씩 선정하여 번역하였다. 홍난파가 네 권의 일본어 단편 번역집에서 선정한 단편소설 목록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다복한 사형수』의 일본어 저본

다복한 사형수	若い女	露西亞二十一人集	モオパッサン選集	シュニツレル選集
多福한 死刑囚 (톨스토이)		餘りに高い!		
뽑아주시오 (체호프)		ああ齒です!		
모델 (오스카 와일드)	モデル			
浮浪者 (모파상)			浮浪者	
紙一枚 (스트린드베리)	紙一枚			
젊은女子 (졸라)	若い女			
靑銅像압헤슨女子 (슈니츨러)				妙な女
海上의火 (투르게네프)		海上の火事		
婚約 (베데킨트)	婚約			
堡壘의奪取 (메리메)	堡壘の奪取			
歸雁 (가르신)	歸雁			

### 3.2 번역 방법과 특징

홍난파의 번역 방법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다복한 사형수』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오스카 와일드의 「모델」을 기타가와 소잔의 일본어 번역, 오스카 와일드의 영어 원본(Wilde 1909), 정영목(2009)의 현대 한국어 번역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Unless one is wealthy there is no use in being a charming fellow. Romance is the privilege of the rich, not the profession of the unemployed. The poor should be practical and prosaic. It is better to have a permanent income than to be fascinating, these are the great truths of modern life which Hughie Erskine never realised. (Wilde 1909: 155)

金が無くて年中ビイくして居ては世辭や愛嬌を振蒔く氣にも成れない。金でもあるなら何となく心持がゆつたりして自然と冗談の一つも言ふ氣に成るが、人からコキ使はれる奉公人の分際などでは、逆もそんな悠長なことをして居る暇はない。貧乏人たる者は須臾く入用だけのことを言つて實際的の受け返答さへして居れば濟むのである。あの男は調子が可いの、いつ逢つて見ても面白い人間だのと言はれるやうなことをする手間で、風來人種なら定つた給料の取れる奉公口でも捜すが當世だ。是れが現在世渡りの眞理である。處が茲にユーギー、エルスキンと云う男は此の眞理を實行しなかつた (喜多川楚山 1915: 43)

돈이 없서 밤낮 失念을 하고 잇서 々々는 人事치레나 愛嬌를 부릴 生覺도 나지 안는다. 돈이 豊足하고 보면 마음이 洽足하야 저절로 弄談갓흔 것이 나오지만은, 남의手下에서 雇用이 되고 보면 到底히 그러한 長閑한 짓은 할 餘暇가 없다. 貧寒한 者는 모름직이 必要한 말만 하야 實用的의 對答을 드르면足하다. 者는 風采가 훌륭하디는 등, 언제 보던지 滋味잇는 사람이라는 등 하고 閑談할 餘暇에, 一定한 給料를 貰을만 한 일거리라도 찾는 것이 第一得策일 것이다. 이것이 現世의 渡世하는 眞理이다. 그러나 여기에 유ギー, 엘스킨이란 男子는 이 眞理를 實行치 아니했다 (홍난파 연도미상: 34)

부자가 아니라면 매력적이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로맨스는 실업자의 일이 아니라 부자의 특권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실질적이고 재미없는 생

활을 해야 한다. 매력적이기보다는 안정된 수입이 있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다. 휴기 어스킨은 이런 근대적 삶의 위대한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다 (정영목 2009: 131)

홍난파가 기타가와 소잔의 일본어 번역본을 매우 충실히 축자역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가와 소잔은 영문의 첫 두 문장을 의역하였는데 ‘charming’과 ‘romance’의 의미를 당대에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어 저본에 충실한 축자역은 『다복한 사형수』 원고 전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기쿠치 마사야스의 「余りに高い!」를 번역한 표제작 「다복한 사형수」에는 「モーパッサンの小説から改作した物語」라는 일본어 부제를 「『몹파상』의小説로부터改作한物語」라고 번역하고 본문 내 주석도 충실히 옮겨놓았다. 일본어 번역본을 거친 중역이지만 윤은영(2005)의 현대 한국어 번역과 비교해도 어색하지 않게 본문의 의미가 잘 전달되는 것을 다음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地中海に面して、佛蘭西と伊太利の國境に程近い邊りに、モナコと言ふ極めて小さな一王國が在る。大抵な田舎町でも此王國よりは多くの住民を持つてゐると言つても憚らない位だ。此の王國には總て七千の人口しかないのだ、で若し住民にその領地を分配するならば一人一エカー(註日本の四段八歩)宛にも當らぬといふ。だが此の玩具の王國にも正式な王様が居つて宮殿もあれば、御陪臣も、大臣も、大僧正も陸軍大將も軍隊もある (菊池仁康 1922: 123)

地中海에面한, 佛蘭西와伊太利의國境에갓가운곳에, 모나코라는極小한一王國이있다. 엇더한 窮村僻地라도, 이王國보다는多數한住民을가갓다고해도過言이아니리만치, 그만치적은나라이다. 이나라의人民은總數가七千名맞게는업스며, 萬一住民에게그나라領地를平等히分配할양이면, 一人압헤一『엑카』=(四段八步)=式맞게는차지되지아니한다. 그러나이玩具의王國에도, 正式의君王가있고, 宮殿이있고, 陪臣이라던가, 大臣이라던가, 大僧이라던가, 陸軍將校라던가, 또는軍隊까지라도있다 (홍난파 연도미상: 7-8)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국경 근처 지중해 연안에 ‘모나코’라고 불리는 작은 왕국이 있다. 왕국의 인구는 모두 합해 겨우 7,0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

에 유럽의 수많은 시골 마을도 그 왕국보다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 자랑할 정도다. 땅의 크기도 아주 작아서 국민 한 사람에게 1,200평도 돌아가지 않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 앙증스러운 왕국에도 엄연히 왕이 있고, 궁궐이 있고, 신하가 있고, 주교가 있고, 장군과 군대가 있다 (윤은영 2005: 305)

홍난파(1939)는 러, 불, 독, 영 등 여러 나라 문호의 대소 명작을 200권 가량 탐독하고 그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 몇 권을 우리 말로 중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어 저본과 홍난파의 번역본, 현대 한국어 번역본의 비교에서 홍난파의 번역과 현대어 번역 사이에는 근 100년에 가까운 세월의 흐름이 있어 문체와 표현에 큰 차이가 있으나, 일본어 저본의 문장, 문단 등을 생략하지 않고 충실하게 완역하였다. 어휘와 단락, 내용의 전달, 표현에서도 내용과 외형을 모두 중시하는 축자역의 솜씨를 엿볼 수 있어 홍난파의 번역이 얼마나 저본에 충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4. 『다복한 사형수』의 번역사적 의의

한국 근대 소설사는 단편양식이 주류 양식으로 확립되어가며 문학사적 특성을 구현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후발 근대화 국가에서 근대문학이 형성되는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박현호 2004: 67). 한국 단편소설의 형성과정에서 1900년대부터 활약한 최남선, 이인직, 안국선, 진학문을 비롯하여 1910년대의 현상운과 이광수, 1920년대 김동인, 현진건, 염상섭, 나도향 등 대부분의 작가들이 일본 유학생들이었으며 그곳에서 접한 서구 문학을 번역하고 근대적 문학 형식으로 정립하는데 앞장선 인물들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00년대와 1910년대 잡지 『소년』과 『청춘』, 『학지광』, 『태서문예신보』 등에 발표된 톨스토이, 모파상, 체호프, 코롤렌코, 안드레예프, 투르게네프 등의 번역작품들은 단편소설의 근대적 전형을 보여줌으로써 근대적 문학형식을 수용,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1920년대에 들어 한국인이 창간한 잡지만 해도 30여종, 문예전문잡지는

36종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최덕교 2004). 하지만 순문예잡지뿐 아니라 주요 종합잡지들 역시 주로 창작에 지면을 할애하였다. 창작소설과 문예비평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개벽』과 『동명』의 번역 기획은 단편소설 번역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개벽』은 1922년 7월에 2주년 기념으로 일류 문인들의 애독 작품을 당사자들의 직접 번역으로 엮었는데 가르신의 『사일간』(염상섭 역), 고리키의 『가을의 하룻밤』(현진건 역), 라겔뢰프의 『결혼행진곡』(변영로 역), 아나톨 프랑스의 『호수의 여왕』(방정환 역) 등 4편이 수록되었다. 『동명』의 경우 1923년 4월 ‘문예’라는 특집 제명 하에 변영로, 현진건, 최남선, 양건식, 염상섭, 이유근, 이광수, 홍명희, 진학문 등 9명이 각각 한 편씩의 단편소설을 번역하였다. 체호프, 투르게네프, 도데, 모파상 등이었다(손성준 2018b: 496-97). 두 잡지에 번역되어 게재된 단편소설들은 이후 최초의 단편소설 번역집인 『泰西名作短篇集』에 수록되었다. 단편소설의 번역이 주로 신문과 잡지를 통해 발표되었기 때문에 앤솔러지 형태의 단편번역집 출판은 매우 드물었다. 일제강점기에 번역된 한국 단편소설 번역집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sup>3)</sup>

<표 2> 일제강점기 출판된 단편소설 번역집

번호	번역자	제목	번역 연도	출판사
1	변영로 편 (홍명희, 진학문, 변영로, 염상섭)	泰西名作短篇集	1924	조선도서
2	권보상	로국문호 체홉短篇集	1924	조선도서
3	신태악	叛逆者の母	1924	평문관
4	나도향	사람은무엇으로사느냐	1925	박문서관
5	미상	中國短篇小說集	1929	개벽사

3) 본 논문에서 ‘단편번역소설’에 중국 명대(明代) 백화단편소설인 『금고기관』, 『설부총서』 등을 위시한 ‘삼언이박(三言二拍)’이라 불리는 단편소설류의 번역, 변안 작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들 명대 백화소설은 조선시대부터 번역, 변안되어 『적선여경록』, 『어사 박문수전』 등 여러 고소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20세기 초 인쇄술의 도입과 발전으로 활자본 고소설은 일제강점기 내내 가장 많이 팔리는 대중 소설로 자리잡았으며, 이해조와 김교제의 작품들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이주영 2008; 김영하 2011; 강현조 2012).

『泰西名作短篇集』은 한국 최초의 서양 단편소설 번역집이다. 모두 15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다.<sup>4)</sup> 최남선의 「마지막 課程」도 실릴 예정이었으나 검열로 삭제되어 번역자는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15편의 작품 중 러시아소설이 9편, 프랑스소설 3편, 스웨덴소설 1편, 국적 불명이 2편으로 러시아소설에 편중되어 있다. 『로국문호 체홉短篇集』은 권보상의 번역으로 1924년 출판되었는데 그 서문격인 「로국문호체홉의략전」에 “소년에 지은 글은 대개 실업수 말의 짝막한 이야기로 비웃는 소리가 만흐며 룡담도 잘하였는데 아모 특별한 목덕도 업시 사람을 웃기라고만 하였다”는 글로 보아 체호프는 물론 문학에 대한 식견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로스칠의해금」, 「변덕장이」, 「실업수자식」 등 열한 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보상은 1907년 학부 내에 설립된 국문연구소에서 1909년까지 음운론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어운적, 이능화, 현은, 이억, 송기용, 윤돈구, 주시경, 지식영 등과 함께 학술서인 『國文研究案』을 저술하였다(권재선 1982; 이기문 1982).

『叛逆者の母』의 저본은 일본의 와타리 헤이민(渡平民)이 막심 고리키의 단편 13편을 번역한 『叛逆者の母』(1920, 文泉堂)이며 신태악이 이 가운데 7편을 번역하여 실었다. 서문인 「序에代하야」에서 ‘시대사상의 선구’요 ‘사회의 정화’로서 고리키의 생애를 소개하며 러시아 혁명에서 그가 많은 일을 하였음을 소개하고, 「讀者여러분에게」에서는 일본어 중역본임을 밝히며 “쓸키-는 무산자가 나온 대 시인이오, 대저작가외다. 그리고 대사상가외다. 그의글은 구구절절이 명문이오, 무산자의부르지즘이외다. 참으로 그의글은 형편이 이러한우리로서 아니볼수업으며, -아니 우리의 형편을예언하야 노은것갓하야... 틈틈이 번역하야 우리형제의 압해 올니지아니치못하게된까닭이외다.”라고 그의 작품세계와 자신의 번역 목적을 밝히고 있다. 번역자 신태악은 1920년대 『장미춘』 동인, 『시대일보』 기자 등으로 활동하며 『개벽』과 『학지광』 등에 글을 발표하였고 종교와 예술의 관련성에 대한 자신의 예술인식을 논하기도 하였다(조영복 2001; 이선이 2015). 권보상과 신태악 모두 한 권의 단편번역집 외에 다른 번역 활동은 발견되지 않았다.

4) 『동명』(1923.4) 31호 번역 특집에 실린 9편의 단편 번역 9편 중 4편이 『태서명작단편집』에 실렸다. 나머지 작품들도 『개벽』, 『학지광』, 『신생활』 등에 실린 작품들이다.

『사람은무엇으로사느냐』는 나도향이 나빈(羅彬)이라는 필명으로 톨스토이의 작품 7편을 번역한 것이다. 저본은 노보리 쇼무(昇曙夢)가 번역한 『人は何によつて生くるか』(1923, 新潮社)이다. 일본어 저본의 목차와 순서는 다르나 작품 전체를 충실히 완역하였다. 수록된 작품 중 「사람은무엇으로사느냐」, 「사람은쌍을얼마나쓰느냐」 두 편은 최남선이 번역한 바 있고 「사랑있는곳에하나님이계시다」, 「두노인」, 「초」, 「독개비와쌍떡조각」, 「닭의알처럼커다란곡식알갱이」 다섯 편도 톨스토이의 후기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들이다. 나도향은 이 외에도 메리메의 『카르멘』, 알렉산드르 뒤마 피스의 『동백꽃』, 모파상의 『추억』 등을 번역하였다.

1929년 출판된 『中國短篇小說集』은 백화 양건식이 번역한 것으로 추정되며,<sup>5)</sup> 일제강점기에 출판된 유일한 근대 중국문학 번역 앤솔러지이다. 루쉰(魯迅)의 「頭髮 이야기」를 필두로 양진성(楊振聲), 우경신(吳鏡心), 평민빙(憑文炳), 푸보잉(蒲伯英), 난슈시(南庶熙), 예샤오쥘(葉紹鈞), 핑슈루안(憑叔鸞), 천다베이(陳大悲), 쉬즈모(徐志摩), 빙신(氷心), 허신링(何心冷), 루인(廬隱), 쉬친원(許欽文), 링수화(凌叔華)의 작품 15편이 실려있다. 정래동, 신언준, 김광주, 이육사 등 몇 명을 제외하고 지식인 대부분이 서구와 일본의 문물을 유입하려던 당시, 양건식은 고전과 현대문학의 다양한 방면에서 중국문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국내에 수용하고자 하였다(김영복 1995). 중국을 근대의 낙오자로, 일본을 근대적 제국의 이미지로 받아들였던 한국에서 최초로 중국 현대문학을 수

5) 『중국단편소설집』에는 번역자의 이름 대신 서문에 ‘北京 平民大學에서’라고만 적혀 있다. 이것을 토대로 이시환(2009)은 번역자가 양건식이 아니라 당시 평민대학에 유학했던 이달(李達)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건식은 중국의 소설, 시, 희곡, 평론 등 여러 장르를 아울러 번역하였고, 특히 그가 번역한 희곡 작품들은 모두 중국 현대문학 사상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작가들의 초기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들이다. 이광수, 박종화와 같은 문인은 물론 1930년대 『매일신보』 학예부장이었던 조용만 등이 양건식을 “조선 유일의 중화극 연구자요 번역가”, “중국문학의 유일한 거장”, “1920년대부터 해방 전까지 중국문학을 많이 번역 소개한 그 방면의 제1인자였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중국단편소설 앤솔러지를 번역, 출판할만한 역량있는 번역자는 양건식 외에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평가와 『중국단편소설집』이 『양백화문집』에 실려있는 것을 근거로 『중국단편소설집』의 번역자를 양건식으로 추정하고자 한다(長白山人 1924.2; 조용만 1995).

용한 사람이 백화 양건식이다. 일본에서 발행된 『지나학(支那學)』에 실린 아오키 마사루(青木正兒)의 글을 번역한 것이긴 하지만 잡지 『개벽』(1920.11.-1921.2.)을 통해 후스와 천두수, 루쉰의 이름을 한국에 처음 소개하였다(이시환 2009; 정선경 2013; 왕염려 2019).

이외에 번역 앤솔러지로 오천원 번역의 『세계문학결작집』(1925, 한성도서)과 고한승이 번역한 『라인 美話』(1925, 박문서관)가 있다. 하지만 『세계문학결작집』은 타고르의 「郵便局」 한 편을 제외하고 모두 7편의 장편소설을 줄거리 소개 수준으로 경계역한 것이고, 『라인 美話』는 독일의 영웅설화, 전설, 민화를 엮은 것이다. 저본은 마쓰야마 준(松山淳)의 『전설의 라인(伝説のライン)』(1920, 洛陽堂)을 번역한 것이다.

1930년대 번역문학은 그 수에 있어 1920년대와 비교해 볼 때 잡지 게재분은 압도적으로 많으나 단행본은 반대로 겨우 21편에 불과하며 단편소설 번역집은 전무하다. 1935년 이후로는 잡지, 단행본 여하를 막론하고 번역양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본이 1935년 국제연맹에서 탈퇴하며 독일과 이탈리아 이외의 ‘적성’국가들에 대한 문화 배격과 통제의 피해가 식민지에 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김병철 1975: 693).

위와 같이 일제강점기에 출판된 단편소설 번역집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단연 당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참여한 『태서명작단편집』이다. 여기에 수록된 작품 하나 하나에 조선 문단을 향한 번역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면(손성준 2018a: 55), 당시 가장 활발한 번역 활동을 보인 홍난파는 무슨 이유로 당대 문단에서 배제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태서명작단편집』의 출판을 주도한 편집자 변영로는 서문에서 “역자들도 어느 정도까지 신용할 수 있다고 깊이 자신”한다고 하였으나 변영로와 진학문 등 일부 역자만이 일본어 외에 외국어 번역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일본어를 경유한 중역 유무가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다. 『태서명작단편집』의 번역자 면면을 볼 때 애초에 번역 기획에서 번역자로서의 역량이나 전문적인 번역 작업에 대한 이해나 신뢰보다는 창작자로서의 역량을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수필집 『명정 40년』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변영로는 동가식서가속하듯 홍난파와 어울려 지낸 친우이며 홍난파의 번역과 저술 활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변영로 1977: 40-43). 그럼에도 홍난파가 가장 활발히 번역하던 시기에 기획된 『태서명작단편

집』의 출판에서 배제되고 1924년 이후 작가와 번역가로서 절필한 이유는 무엇인지 홍난파의 수필 「분서(焚書)의 이유」에서 그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문학 청년으로 보냈던 지난날을 회고하는 수필에 따르면, 어느 구정 저녁 문인 몇 명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변영로는 “너는 음악이나 하면 했지 주제 넘게 소설은 다 무엇이냐, 그대 개천지 통만고(開天地通萬古)해서 두 가지 예술에 대성한 천재가 누구란 말이냐?”(홍난파 1939: 7)라고 ‘핏대까지 올리며’ 면박을 준다. 홍난파는 그 날 새벽 분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출판을 준비중이던 창작집 『噴火口上에서』의 원고를 불사르고 음악의 길로 매진하게 되었다고 회고하였다.<sup>6)</sup> 변영로의 이러한 지적은 단순히 취중에서 나온 실언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엄격한 문학관에서 비롯된 불편한 심경의 토로였다. 변영로의 문학관과 예술가의 자세에 대해서는 1924년 출판된 『조선의 마음』 부록편에 실린 「詩人, 藝術家, 哲學者여」에 잘 나타나 있다.

勿論全部는 아니겠지마는... 自己의 領分도 아닌 詩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哲學을 研究하는 이가 있겠다. 또 더러는 입이 텅텅할 때에 담배 피우고, 마음이鬱寂할 때에 술마시는格으로 文學이니 藝術이니 哲學이니 하고 떠드는 속도 있겠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보기 싫고 참을 수 없는 것은 아모 理由업시 動機업시 目的업시 野心까지도 업시 空然히 남이 하나 나도 좀 작난해 볼 가하는 調子로 하는 脈업고 神經업는 無賴의 氣分에 싸혀하는 이들이다... 젊은 朝鮮을 褻되나게 할 만흔 詩人, 藝術家, 哲學者들이여! 銘心할 것이다— 우리의 生은 遊戱가 아니고 奮鬪입을! 遊樂이 아니고 勞苦입을! (변영로 1924: 89-94)

변영로에게 홍난파의 번역 작업은 ‘유희’이자 ‘유락’인 딜레탕티즘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홍난파와 같은 전문적 번역가에 대한 배제적 경향은 문단 전체에서 엿보이며 이는 지식인 사회의 이중언어 상황, 일본어 중역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1920년대 번역문학은 단행본의 경우 1924년 23편을 정점으로 이후 점차 감

6) 수필이 쓰인 해는 1939년이고 이 일이 있었던 때는 15,6년전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 1923년이나 1924년이 된다. 홍난파는 1924년 줄라의 『나나』를 번역, 출판한 이후 단행본 번역서는 출판하지 않았으며 1926년 『청년』에 다복한 사형수를 게재한 후 음악관련 글이나 수필 외의 번역이나 창작 등의 저술활동을 하지 않았다

소하여 1927년 7편, 1928년 5편, 1929년 2편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원인을 김병철(1975: 604-605)은 일본어 보급으로 일어 독해력이 상승하여 우수하고 값도 싼 일역서가 독서계의 환영을 받았다는 것과 이 무렵 창작방면의 발전을 이유로 들었다. 대표적으로 김동인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온갖 번역서를 수입할 수 있고 중등학교만 졸업해도 일서를 읽을 수 있다며 거침없이 국역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努力을 들이지 안코도 東京方面에서 發行되는 온갖 번역文化를 輸入할수 있다. 朝鮮에 잇서서 外國文化를 吸收하여보라고 생각 하는 사람은 적어도 中等學校以上의 사람들이다. 朝鮮사람은 初等學校만 지나면 벌써 넉넉히 東京서 發刊되는 書籍은 읽을만한 語學力을 가지게 된다. 이런지라, 朝鮮에서의 翻譯文化라 하는것은 거진 無意味할것이다... 朝鮮文으로 翻譯된 書籍보다 和文으로 翻譯된 書籍에 훨씬더 信用과 評價를 노피듬에라 (春士 1935. 5. 20: 4면)

지금 中等學校出身程度以上의 사람들의 열이면 아홉 까지가 하는 말이, 『대체 朝鮮文을 읽자면 感動도되지 안코 흥도나지 안흐며 흥분도 느낄수 없다』한다. 朝鮮語는 지금 이만치 拒却을 당한다 (春士 1935. 5. 23: 4면)

김동인은 1935년 8월 31일 『매일신보』에 기고한 「翻譯文學」에서도 거듭 국역무용론을 되풀이하면서 “왜 일역이용을 버리고 유치한 번역문화를 이곳에 수립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한 후, 해외문학파들이 우리말 번역을 일삼는 것은 금력과 정력의 낭비이며, 그 번역이 일역보다 나은 것이 없다면 그야말로 쓸데없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어 번역본을 저본으로 하는 중역에 대한 비난이 거세어진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어를 경유한 중역에 대해서는 양주동이 다음과 같이 모멸적인 맹비난을 퍼부었다.

요새朝鮮에는「개똥翻譯」, 도야지똥翻譯」이 꽤 많은모양이다. 남의똥을먹고 눈스동郎두똥똥이개똥이오 개똥을먹고눈똥 세똥똥이도야지똥이다. 重譯 重々譯이그싸위가안이고무엇이라.勿論아즈語學力이不足한우리네들이닛가不得已한일이지만은 그나마개똥翻譯이라도올은개똥翻譯은되여야할 것이다. 되는대로번역해서原作과는 이약이까지통다르게되여서는아모리도야지똥翻譯이라도容恕치못할일이다. (양주동 1924: 89)

양주동이 김억의 오역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양주동이 편집인으로 있던 『금성』과 김억이 주로 활동한 해외문학과 모두 일본어 중역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이러한 당시 문단의 분위기가 일본어를 경유한 중역을 감소시키며 결국 전체 번역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23년 예정대로 출판되었다면 단편소설 번역집으로도, 실려 있는 개별 작품 모두 최초의 번역으로 기록되며 독서계를 풍요롭게 했을 『다복한 사형수』는 출판되지 못하고 원고로만 남아 있다.

##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다복한 사형수』의 서지적 고찰과 더불어 번역의 계보와 번역 방법, 번역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1920년대 초반 단행본으로 출판 예정으로 일체의 검열까지 마쳤으나 미상의 이유로 출판되지 못한 채 원고로 남아 있는 홍난파의 『다복한 사형수』에는 톨스토이, 체호프, 투르게네프, 가르신 등 러시아 단편소설 4편, 모파상, 졸라, 메리메 등 프랑스 단편소설 3편을 비롯하여 베데킨트, 슈니츨러, 스트린드베리,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소설이 각 한 편씩 모두 11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다섯 권밖에 출판되지 못한 단편소설 번역집의 번역사 안에서 가장 다양한 작가의 대표작들을 선별하여 번역한 번역집이다. 홍난파의 번역과 일본어 번역본 비교에서는 문장과 단락, 내용의 전달과 표현에서 큰 차이가 없는 축자역의 숨씨를 보여, 홍난파의 번역이 저본에 매우 충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朝鮮에는 아직 出版界가 一目的 價値가 없다. 잇다는 것이... 春香傳이니 沈淸傳이니 劉忠烈傳이니 무어니 무어니 독감이 작란감 갖튼 울긋불긋한 新舊小說이요. 最近에 와서 一部 靑年文士의 創作 몇 篇, 譯文 몇 篇이 이슬 뿐이다(春坡 1924: 92-93).”는 1924년 춘과 박달성의 이와 같은 일같은 몇 편 되지 않는 당시의 단편소설 번역집 출판 상황에서 『다복한 사형수』가 출판되지 않은 채 원고로만 전해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더한다. 1920년대 초반, 한국 단편소설에 원형을 제시하며 국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세계문학을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번역

문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출판 예정이었던 홍난파의 단편소설 번역집 『다복한 사형수』는 당시의 번역 수준과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번역사적 자료이자 한국어의 변모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어문학적 자료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 번역사 및 국문학적 연구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현조 (2012) 「한국근대소설 형성 동인으로서의 번역·번안: 근대초기 번역·번안소설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6: 7-39.
- 고명철 (2002) 「해외문학과와 근대성, 그 몇 가지 문제 - 이현구의 [해외문학과 조선에 있어서의 해외문학과와 임무와 장래]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10: 135-149.
- 권재선 (1985) 「권보상의 음운이론과 음성견해」, 『우리말글』 3: 1-20.
- 김병철 (1975)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 김영복 (1995) 「백화의 문학과 그의 일생」, 남윤수, 박재연, 김영복 (공편), 『양백화문집 3』, 춘천: 강원대학교출판부, 355-361.
- 김영화 (2011) 『한국·일본의 명대 백화단편소설 번역·번안 양상-三言·二拍과 『今古奇觀』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헌호 (2004) 『식민지 근대성과 소설의 양식』, 서울: 소명출판.
- 손성준 (2018a) 「번역문학의 재생(再生)과 반(反) 검열의 앤솔로지-[태서명작단 편집(泰西名作短篇集)(1924) 연구』, 『현대문학의연구』 66: 153-204.
- 손성준 (2018b) 「한국 근대소설사의 전개와 번역」, 민족문화사연구소 (편저), 『문학사를 다시 생각한다』, 서울: 소명출판, 471-512.
- 왕염려 (2019) 「백화 양건식의 중국 현대문학 번역·수용에 대한 재고찰」, 『한국학연구』 52: 9-41.
- 윤경애 (2019) 「홍난파의 [쿠오 바디스] 번역 양상과 번역의 계보 고찰」, 『번역학연구』 20(2): 33-55.
- 윤은영 옮김 (2005) 「연금받은 사형수」, 『바보 이반』, 서울: 아름다운날, 305-317.
- 이기문 (1982) 『개화기의 국문연구』, 서울: 일조각.

- 이미원 (1993) 「해방전 서구 번역극의 수용 양상 고찰」, 『국어국문학』 109: 103-127.
- 이선이 (2015) 「근대적 예술인식의 논리화 방식과 그 의미」, 『우리문학연구』 47: 339-362.
- 이시환 (2009) 「일제강점기 한국 작가들의 중국 현대문학 바라보기와 수용양상」, 『중국학(구중국어문론집)』 33: 1-40.
- 이주영 (2008) 「근대 전환기 고소설의 대응 양상과 그 의미 - 박건희 편집 및 개작 소설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7: 127-152.
- 정선경 (2013) 「양건식의 중국신문학운동 수용과 번역의 태도」, 『중국어문학논집』 79: 417-448.
- 정영목 옮김 (2009) 「모범적인 백만장자」, 『오스카 와일드 작품선』, 서울: 민음사, 131-140.
- 조영복 (2001) 「1920년대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시와 그 성격」, 『우리말글』 21: 287-310.
- 조용만 (1995) 「白華의 기억」, 남윤수, 박재연, 김영복 (공편), 『양백화문집 1』, 춘천: 강원대학교출판부, 5-9.
- 최덕교 (편저) (2004) 『한국잡지백년』, 서울: 현암사.
- Gerald, Gregory Fitz (1968) 'The Satiric Short Story: A Definition', *Studies in Short Fiction* 5(4): 349-354.
- Gullason, Tomas (1964) 'The Short Story: An Underrated Art', *Studies in Short Fiction* 2(1): 13-31.
- Wilde, Oscar (1909) 'THE MODEL MILLIONAIRE', *THE WORKS OF Oscar Wilde*(1-15) v.3, Boston: C. T. Brainard, 155-165.

<분석 자료>

- 권보상 (편역) (1924) 『로국문호 체홉短篇集』, 경성: 조선도서.
- 김동인 (1935. 8. 31.) 「翻譯文學」, 『매일신보』.
- 나도향 (편역) (1925) 『사람은무엇으로사느냐』, 경성: 박문서관.
- 변영로 (1924) 『朝鮮의 마음』, 경성: 평문관.
- 변영로 (편역) (1924) 『泰西名作短篇集』, 경성: 조선도서.

- 변영로 (1977) 『醜聞四十年』, 서울: 범우사.
- 신태약 (편역) (1924) 『叛逆者의母』, 경성: 평문관.
- 양건식 (편역) (1929) 『中國短篇小說集』, 경성: 개벽사.
- 양주동 (1924. 5) 「雜俎」, 『금성』 3.
- 長白山人 (1924.2) 「文人印象記 양건식군」, 『개벽』 44.
- 「創刊卷頭辭」 (1927.1) 『해외문학』 1.
- 春士 (1935. 5. 20) 「擡頭된 翻譯運動(上)」, 『조선중앙일보』(석간).
- 春士 (1935. 5. 23) 「擡頭된 翻譯運動(下)」, 『조선중앙일보』(조간).
- 春坡 (1924. 6) 「出版界로 觀한 京城」, 『개벽』 48.
- 홍난파 (1939. 6) 「분서(焚書)의 이유」, 『박문』 8.
- 菊池池康 (1922) 『露西亞二十一人集』, 東京: 善文社.
- 喜多川楚山 (1915) 『若い女』, 東京: 菊屋出版部.
- 楠山正雄, 山本有三 (1922) 『シュニツレル選集』, 東京: 新潮社.
- 平野威馬雄 (1920) 『モオバツサン選集』, 東京: 新潮社.
- 山本有三 (1926) 『情婦殺し』, 東京: 新潮社.

[Abstract]

**A Study on the Genealogy of Unpublished Short-Story Translation,  
*A Happy Condemned Criminal* by Hong, Nan-Pa**

Youn, Kyung-ae

(Yeungnam University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This study is a bibliography study on Hong Nan-pa's unpublished anthology of short story translation, *A Happy Condemned Criminal* and aims to reveal the genealogy of translation from Japanese translation to Korean translation and its original script and the significance of the translation within the history of translation of the short novel anthology. Hong Nan-pa, a pioneer of Western music in modern Korea, is famous as a violinist and musician who made numerous masterpieces, but he is also a translator who translated many of the world's greatest novels. His work, *A Happy Condemned Criminal*, was scheduled to be published in book form in the early 1920s and was even censored by Japan, but was not published for unknown reasons. Hong Nan-pa's *A Happy Condemned Criminal* contains 11 short stories such as four short stories from Russia, including Tolstoy, Chekhov, Turgenev and Garshin, three short stories from France, including Maupassant, Zola and Merimee, as well as short stories from Wedekind, Schnitzler, Strindberg, and Oscar Wilde. These short stories were selected and translated from the four short stories anthology that Kitagawa Sozan, Kikuchi Masayasu, Hirano Imao, Gusuyama Masao, and Yamamoto Yūzō have translated. They were all original but second-hand translation with Japanese original scripts not English translations. However, it is a collection of translations of representative works by the most diverse authors in the translation history of the short stories collection published only five books throughout the Japanese occupation. In comparison of Hong Nan-pa's

translation and Japanese translation, it was confirmed that Hong Nan-pa's translation was very faithful to the original script as showing the skill of a verbal translation, which does not differ much in the sentences and paragraphs, and delivery and expression of contents. Hong Nan-pa's book of short stories, *A Happy Condemned Criminal* was supposed to be published at a time when translation literature was exploding as a purpose to expand the base of Korean literature and introduce world literature by presenting a prototype to Korean short stories in the early 1920s, and it is an important data which can estimate the level and content of the translation at that time.

▶ Key Words: Hong Nan-pa, Korean modern translation, Korean short-story translation

▶ 주제어: 홍난파, 한국근대번역, 단편소설번역, 다복한 사형수

윤경애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후 연구원

yka9511@gmail.com

관심분야: 근대 일한 번역, 메이지·다이쇼시대 번역사

논문투고일: 2020년 5월 5일

심사완료일: 2020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2020년 5월 26일